
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배포일자	2022년 3월 2일(수) 총 4매		 환경특별시 인천	
담당 부서	생활환경과	담당자	• 환경안전팀장 윤은주 ☎440-3711 • 담당자 정일한 ☎440-3715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지역 '권역형 환경보건센터' 로 가천대 길병원 선정

- 환경부 선정 ... 환경보건정책 수립 지원, 환경취약지역 모니터링 등 수행 -

인천광역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‘인천지역 권역형 환경보건센터’ 로 가천대학교 길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.

‘권역형 환경보건센터’ 는 환경보건법 개정('21.7.6. 시행)으로 맞춤형 지역 환경보건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에서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다.

지난해 10월 인천시가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설치지역으로 선정됐고, 올해 1월 환경부 공고 및 심사를 통해, 가천대학교 길병원을 인천광역시 환경보건센터 운영사업자로 선정했다.

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총 사업비 30억 원(국비 15억 원, 시비 15억 원)으로 '22년부터 '26년까지 5년간 운영된다.

센터는 인천시 환경보건정책 수립 지원, 환경보건 취약 지역에 대한 노출 및 건강 모니터링, 환경보건 거버넌스 구축 및 포럼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.

전문가를 활용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인천시는 산업단지, 폐기물처리시설, 발전시설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환경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, 환경특별시에 걸 맞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고, 환경성 질환 예방·관리와 교육·홍보를 통해 지역의 환경보건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.

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“인천광역시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환경오염원이 산재된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·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 라고 말했다.

<붙임> 가천대학교 길병원 사진 및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개요

□ 관련 사진

환경보건센터(길병원) 전경



환경유해인자 측정장비 현황

DEKATI ELPI



GRIMM PAS



미세먼지(중량법) 측정장비



RAE, ppbRAE



참고

「권역형 환경보건센터」 설명자료

(‘21.12.13, 환경보건정책과)

□ 환경보건센터 개요

- 환경보건법 제26조(환경보건센터의 지정·운영)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·연구와 예방·교육을 위하여 환경보건센터를 지정·운영하고 있음(‘07~)
 - 지역 환경보건 기반구축, 정책지원, 연구, 인력양성 분야 등 17개소
- (역할) △환경성질환 원인규명 및 조사·연구, △지역 환경보건 이슈 대응, △환경보건 및 환경성질환에 대한 위해소통, △환경보건 DB구축, △전문인력 육성, △환경성질환 예방·관리 교육·홍보
- (대상) 국·공립 연구기관, 대학교, 국·공립병원, 민간병원 등
- (지원) 센터별 연간 3억원(국고기준) 운영비 지원(국고매칭 50%~30%)

□ 권역형 환경보건센터

- (지정분야) 지역 환경보건 기반구축
- (지정·지원) 지정일로부터 5년, 센터 운영비 연간 6억원 지원
 - 센터별 추진 사업, 지방비 매칭금액(국고 50% 매칭) 등의 상황에 따라 지정기간 및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음
 - ※ 센터별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규모 차등화 요구(‘20년 기재부, ‘22년 예산안 국회)
- (주요사업) △환경보건 기반 구축, △환경보건 지역정책 수립 지원, △지역 현안 조사·연구, △취약계층 지원, △환경보건 교육·홍보 등